

전남도, 솔라시도 '탄소중립 에듀센터' 2025년 개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425억 투입... 해남에 건립 교육·전시·체험시설 조성

전남도가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조감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환경부, 전남도, 해남군이 총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기업도시 5만7500㎡ 대



지에 건립한다. 전시·교육시설과 야외 체험시설을 갖춘 예정이며,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5년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본계획·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사업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올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고 행안부 재정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센터는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 등 연간 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 사례,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미래 지역사회 변화 등을 체험하는 전시·체험 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로 개발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일자리·관광·주거·교육·의료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내 최대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전체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전용시범단지 50만여㎡(약 16만평) 규모의 복합휴양문화공간인 산이정원 등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건립되면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도시 비전에 맞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다양한 투자사업을 유치해 전남도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1번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곽준길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이 미래 에너지·환경 문제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적기에 마무리해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 인공지능사업단장 김준하 GIST 교수 선정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산하 인공지능융합사업단장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52·사진) 교수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채용 기간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신임 김 단장은 지난해 6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8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지스트 기획처장과 광주성장 더 큐브소



장,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에디슨 도심환경 전문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자가 1명 밖에 없어 출자·출연기관 인사 지침에 따른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김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서구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서구 주민으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관들이 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발대식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업무를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5·18사적지 안내 스마트투어 앱 활용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을 활용, 1980년 민주항쟁의 역사를 홍보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은 '그날의 현장에서 그날의 기록을 담자'라는 주제로 사용자 혼자 스마트폰을 통해 5·18사적지를 찾아가며 민주항쟁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다. 1980년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숨쉬는 29곳의 사적지 콘텐츠 정보

를 증강현실 스토리와 3D, 위치기반 지도를 활용한 스마트해설가이드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는 8일 5·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5·18사적지 안내해설사(오월지기) 교육에 참여하는 오월지기 3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투어 앱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5·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은 '5·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검색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취약계층 자활급여 2.1% 인상

전남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한다.

전남도는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3월부터 연초 대비 2.1% 인상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자활사업은 각 시·군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환경정비사업, 정부양곡 배송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장진입, 사회서비스, 근로유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시장진입·사회서비스형은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근무한다.

유형별 지급단가는 시장진입의 경우 5만6420원에서 5만7690원으로 인상되며, 사회서비스는 4만889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근로유지는 2만7020원에서 2만767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연중 모집 중이며, 참여를 바라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15개 과정 운영

광주시가 청소년이 배우거나 활동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를 지역사회배움터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청소년 주도 15개 프로젝트 참여자 150여 명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7월22일까지 모두 15차례(주 1회) 방과 후 과정으로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소셜창작 △창업마케팅 △조정실습 △영화비평 △현대미술이해 △주류중독조사 △베이킹 △역사콘텐츠 제작 △전시 기획 △패션윤리 △스포츠기

획 등 14개의 사전선택형과 정해진 주제가 아닌 참여 청소년이 원하는 주제로 팀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제멋대로 프로젝트'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중 소셜창작은 비대면 프로젝트로,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21일까지 온라인(bit.ly/2023청주프신청)에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2-224-0541) 또는 카카오톡채널(2023청주프)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지 기자

'안전성 논란' 지산IC 용역 결과 13일 발표

진출로 위험도 평가 최종 보고 '개통 불가 결정' 수순 밟을 듯

안전성 논란과 함께 개통이 보류된 광주 지산IC 진출로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가 오는 13일 발표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산IC 위험도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의 경우 강기정 광주시장이 밝힌 안전성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한 만큼 개통 불가 결정을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산IC 교통사고 예측·위험도 평가 용역업체로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산학협력단

은 그 동안 2순환도로 운전자 주행 행태, 교통 흐름 등을 조사했다. 또 가상주행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각종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지산IC 현재의 모습인 왼쪽 진출로를 이용했을 경우, 최초 설계안인 오른쪽으로 진출로가 건설됐을 경우, 완공 당시 설치한 안전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운행했을 경우, 추가 안전구조물을 설치한 뒤 운행했을 때 등을 비교 분석했다.

도로 왼쪽 출구 형태의 지산IC는 완공과 함께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개통이 보류됐다.

규정상 터널에서 연결로까지 이격거리는 680m이지만, 지산IC는 지형 여건상 좌우차로가 각각 5m·19m에 불과해 운전

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거(視距)가 너무 짧고, 이로 인한 본선 차량들의 대기문제와 속도 제한에 따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훼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전 문제로 개통이 최종 백지화 될 경우 투입한 77억원의 예산(설계비 6억여 원 포함)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데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산IC는 당초 우측방향으로 계획됐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분진·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주민과 전문가·경찰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방향 진출로로 최종 결정됐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지역 대학과 '해상풍력 전문 인력' 최대 300명 양성

목포대·에너지공대·순천대 등 6개 대학 융합 전공학과 개설

전남도가 지역 대학과 융합전공 개선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 과정은 산·학·관이 함께 해상풍력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모델로써 전국에선 처음이다.

전남도는 맞춤형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6개 대학에 개설한 해상풍력 융합 전공 학과가 6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전남의 대규모 해

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발맞춰 산업 현장 전문 인력 적기 공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기계, 전기, 조선·해양, 전자·통신, 건축, 토목공학 등 종합 연계 장치산업이다.

목포대, 순천대, 초당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전남 소재 6개 대학이 보유한 교육시설을 공유하기 위해 단일 전공이 아닌 융합 전공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3·4학년 학생 25명이 최종 선정돼 교육을 받는다.

강의는 목포대, 한국에너지공대, 목포

해양대, 순천대, 초당대, 동신대, 조선대 등 총 7개 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융합 전공 교육과정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 인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최대 300여명의 해상풍력 생산·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교과 과정은 '해상풍력발전 설계·실습', '해상풍력안전관리', '발전단지 계통연계', '해상풍력발전 유지보수' 등 총 26개 교과목으로 이뤄졌다.

공통학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최황지 기자